

#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점문양 복식의 염직 연구

양경애

충청대학 패션산업디자인과 부교수

服飾文化의 일부분으로 染色과 織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크지만 染織 실물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대 한국의 染織文化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고구려 복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古墳壁畫에 표현된 극히 한정된 시각자료를 통해 형태적 측면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염색이나 직물에 관한 것은 그림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고대 복식에 대한 공백을 매워주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해온 고분벽화 복식은 해석 여하에 따라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강화해 온 듯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 복식을 복원할 경우 가장 특징적인 고구려 복식으로 여러 차례 복원이 이루어진 무용총 벽화의 點紋樣(dot pattern) 복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염직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현대적 감각으로 점문양을 표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당시의 복식문화를 보는 데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주었다고 본다. 따라서 부족한 자료이나 당시의 염직문화에 대한 자료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복원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염직문화를 보여줄 구체적인 실물자료는 현재까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어 당시의 복식문화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크다. 고구려와 밀접한 교류관계를 가졌던 인접 국가들에서는 염직문화를 밝힐 수 있는 단서인 당시의 실물이 존재하고, 또 우리에게도 고구려 벽화에 표현된 시각자료가 있으므로 부족하지만 일단은 고구려 염직문화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 하에 고구려의 염직문화의 일단을 살피기 위해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문양을 나타내기 위해 당시에 어떤 기술과 기법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고구려인이 선호한 심미적 태도와 함께 그 당시의 염직기술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현재의 복식 고증과 재현에 타당성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함이 본 고의 목적이다.

연구자료로는 고분벽화에서 집안지역의 무용총과 장천 1호분, 각저총, 삼실총, 평양지역의 쌍영총과 수산리, 덕화리 제1호 무덤 등에 표현된 복식 가운데 점문양으로 보이는 복식을 선택하였다. 점문양은 5~6세기 고구려인이 선호했던 문양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집안과 평양 지역의 고분벽화에 공통적으로 많이 표현되었을 것이다. 점문양의 염직물을 중국과 일본의 제작연대를 기준하여 보면, 중국의 경우 3~5세기, 일본의 경우는 8세기의 것을 참고하며, 이를 통해 당시 선호되었던 각국의 문양과 그 문양을 표현하기 위한 염직기술과 방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고구려 시대에 유행한 직물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자지힐문”한 직물을 제조한 사실이 『한원(翰苑)』에 기록되어 전한다. 직물의 일부를 실로 묶어서 紫色 染液에 담구어 염색함으로써 방염된 부분이 문양으로 나타나는 문양염직물이다. 한국은 자색염이 유명했다고 한다. 고분벽화에 표현된 점문양은 직조에 의한 직물로 보기보다는 염색 기법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그리기와 자수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패턴의 문양을 표현하기에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 사슴 가죽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으며 표범류의 동물 가죽을 사용한 경우도 문헌자료가 뒷받침한다. 고구려의 풍토와 자연환경 등을 참고하면 동물의 모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착용했음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가능성은 점문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염색과 직조 방식을 사용했다고 본다. 고분벽화의 점문양은 방염 중에서도 교힐이나 납힐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의 경우 5~6세기는 중국과 빈번한 외교관계를 통해 염직 문화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고구려의 염직문화는 주변국가의 염직기술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